



김미현 '우승컵 포옹' 3년9개월만에 LPGA 정상

‘슈퍼파랑’ 김미현(29·KTF)이 3년9개월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 정상에 올랐다. 김미현은 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 리유니온리조트골프장(파72·6천531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진클럽스앤드리스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4개를 묶어 1언더파 71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2언더파 276타로 우승했다. 김미현은 이로써 지난 2002년 8월5일 웬디스핀오픈 우승 이후 4년이 다 되도록 인연을 맺지 못했던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관련기사 22면> 1999년 데뷔 이후 통산 6승째를 올린 김미현은 후배들에게 밀려 뒷전에서 물러났던 ‘LPGA 진출 1세대’의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37만5천달러의 우승 상금은 지금까지 8년 동안 LPGA 투어에서 뛰면서 받았던 어떤 상금보다 액수도 많았고 그 값어치 또한 무엇보다 비길 수 없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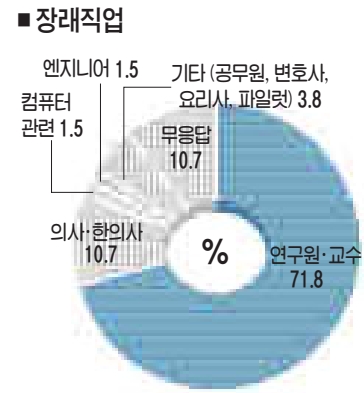
‘과학영재’ 25% 이공계 외면

■ 광주·전남 과학고 신입생 131명 설문조사

11% 의대·한의대 희망... 지역대학기피도

최근 잇따른 정부의 이·공계 우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의 과학영재가 진학하는 광주과학고와 전남과학고의 올 신입생 중 10.7%가 의사나 한의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등 25%가 이공계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5.7%가 가고 싶은 대학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꼽는 등 대부분 타지역 대학 진학을 선호하고 광주·전남권 대학 진학 희망자는 한 명도 없어 지역 대학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9면> 이 같은 결과는 본보가 광주과학고 1학년 61명과 전남과학고 1학년 70명 등 1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결과, 장래 희망 직업을 묻는 질문에 의사와 한의사가 각각 9.2%(12명)와 1.5%(2명)으로 모두 10.7%에 달했다. 연구원이나 교수라고 응답한 학생은 71.8%(94명)에 그쳤다. 이외 엔지니어 2명, 컴퓨터 프로그래머 및 컴퓨터보안전문가 각 1명 등이었다. 10.7%(14명)는 아직 장래 희망 직업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진학 희망 대학에 대해서는 55.7%(73명)이 KAIST라고 답했고, ▲서울

대 15.3%(20명) ▲포항공대 6.1%(8명) ▲연세대 2.3%(3명) 등의 순이었다. 광주·전남권 대학은 한 명도 없었다. 9.9%(13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과학고 진학동기에 대해서는 83.2%(109명)이 본인 스스로 선택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 중 9.2%(12명)는 2학년을 마치고 조기에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과학고에 입학했다고 밝혔다. 부모와 교사의 권유에 의해 진학한 학생은 10.7%(14명)였다. 중학교 재학 중 학원 수강 여부를 묻는 질문에 92.4%(121명)가 다닌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전체의 60%가량이 2~3년 동안 계속 학원에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수강과목은 1과목 9.1%(11명), 2과목 33.1%(40명), 3과목 26.4%(32명), 4과목 15.7%(19명), 5과목 14%(17명) 등으로 3과목 이상이 43.8%에 달했다. 수강 과목(복수응답)은 수학 90.9%(110명), 영어 77.7%(94명), 과학 71.9%(87명), 국어(논술) 32.2%(39명) 등 순이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65.6%(86명)와 34.4%(45명)였고, 출신 중학교는 공립이 68.7%(90명), 사립이 31.3%(41명)이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함평 천지 나비 세상 8일까지 열리는 '제8회 함평 나비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함평천 수변공원의 만개한 유채꽃밭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부동산 등 4개 법안 오늘 직권상정

김원기 의장 “민생법안 우선 처리”...한나라 “강력 저지”

김원기 국회의장은 1일 3·30 부동산 대책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2일 본회의 직권상정 방침을 밝혔다.

김기만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대책 관련 3법과 동북아역사재단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심사기일을 2일 오후 1시까지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2일 본회의 직권상정 방침이 결정된 법안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3·30

부동산 후속대책 관련 3개 법안과 ▲동북아역사재단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이다. 김 수석은 3·30 부동산대책 관련법 직권상정 방침 배경에 대해 “처리 시한을 늦출수록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시급한 민생법안이 정쟁에 발목을 잡혀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으로부터 직권상정 방침을 통보받은 자리에서 직권상정 대상 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日本 규슈 역사문화 현장체험 스승의날 선물 드립니다

규슈일보사와 대주관들이 공동으로 스승의 날을 맞아 이 지역 교사 여러분께 노고를 위로하는 뜻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 역사문화 탐방코스인 광주·전남지역 교사들을 초대드리기로 했습니다.

규슈 지방은 사공백 한옥·고대사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는 한-일본교류의 상징인 역사현장입니다. 이번 교사 탐방단은 방안에서 특수 박물관문화에 있던 한때의 ‘요시노가리’를 비롯해 있는 경우 ‘기요키요가사’의 조종인 원대 상설전시관에서는 ‘구마모토’ 성곽지 등 유서 깊은 문화유산과 최근 각광받고 있는 국제적 분위기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탐방단은 이번에도 ‘후타타리’ 교토, 아소산, ‘벳부’ 온천도 순방게 됩니다.

탐방단의 여행 길에는 ‘대주교외’라는 새 이름으로 친환경적 아라카시 문화촌 전도하고 있는 대주교외의 기원어촌의 사회환경 차원에서 부단히 지원합니다. 주관여행사인 조이브관광도 최우선의 일에 같이만으로도 선반한 여행을 주관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참가 대상은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전남도 교육청이 주관한 초·중·고교사 45명씩 한파의 참가비용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규슈일보사는 일요드레 대 접은 교사들에게 이화같은 혜택을 드릴 계획입니다.

- ▶ 행사기간 : 5월 24일 ~ 27일 (3박4일)
- ▶ 탐방코스 : 광주~부산~후쿠오카~구마모토~벳부~후쿠오카~교토~관주
- ▶ 주 관 : (주)조이브관광
- ▶ 분 의 : 규슈일보사 문화사업국(062-220-0541)

光州日報 · 大洲建設

김원기 수석 등 靑 비서실 週內 대폭 교체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주중 문재인 민정, 김원기 인사, 황인성 시민사회 수석을 교체하는 등 비서실 진용을 대폭 개편할 방침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번 청와대 개편에는 이용섭 전 혁신관리수석의 행정자치부 장관 기용과 박기영 전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의 사퇴로 공석중인 혁신관리수석과 정보과학기술보좌관 후임 인선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세 분의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사의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고, 대통령 해외순방 출국(7일)전에 후속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

했다. 5명의 수석, 보좌관이 바뀌는 이번 청와대 비서실 개편은 참여정부 들어 가장 큰 폭이며,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를 보좌할 진용을 구축하는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후임 수석은 외부 인사 보다는 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 내부 인사 중에서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해질 민정비서관, 박남춘 인사관리비서관, 이호철 국정상황실장 등이 유력한 후임 수석 후보군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후원학원 장학50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sbu.ac.kr
 ▶ 상담전화 : 062-971-0114 ▶ T.062-971-5000-9

세계로 뻗어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rim.ac.kr
 ▶ 상담전화 : 062-953-1111 ▶ T.061-360-5000

제51회 호남예술제 미술·작문·논술 공모
 접수기간 : 4월 25일 ~ 5월 25일까지
 ▶ http://www.kwangju.co.kr ▶ ☎ : 062-2220-0541, 222-8111

난, 변하고 싶어

내가 변덕장이라구?
 천만의 말씀!
 난 싱긋하게 변하고 싶은 10대라구.
 센스틱 뽀뽀뽀뽀가 있으니
 푹푹 터지는 멜론향과 새콤달콤한 과일향까지 - 입술이 변한다.
 싱긋하게 -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kjapharm.co.kr

입술에 비타민을 주지

아름다운 입술
SENSTICK

센스틱이 신세대 감각에 맞는 이유
 - 혁신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상급한
 - 명품향 천연의 과일향이 오래 지속됩니다.
 - 입술에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되어 입술
 치료효과 및 보습효과로 항상 생기가 넘칩니다.
 - 그다만큼 위한 변신의 입술을 가져다 줍니다.